

이재명, 연일 쇠신 드라이브 국민 내각으로 통합정부 천명

정파·연령 떠나 인재 등용 30~40대 장관 적극 기용 박스권 지지율 돌파 제3지대와 연대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국민 내각' 카드를 꺼내며 정치 쇠신 드라이브에 한층 박차를 가했다. 측근 그룹인 '7인회'의 백의중군 선언과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당내 세대교체에 이어 이날 이 후보가 직접 이념·진영을 아우르는 통합 정부 구상을 내놓으며 쇠신의 지평을 점점 더 넓혀 가는 양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유능한 정치는 어느새 대결과 분열, 혐오와 차별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를 굴복하게 만드는 자신들만의 '여의도 정치'에 갇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념과 진영을 버리고 국민

최우선의 실용 정책, 국민과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겠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내각,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는 정파·연령에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내각' 구성, 30~40대 장관의 적극적인 기용 등이 구체적 방안으로 열거됐다. 측근 세력의 임명직 포기 선언과 당내 주류 세력인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에 이어 탈진영·탈이념의 내각 구성 방침을 선언하며 외부 인사가 참여할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주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등 이른바 '제3지대' 후보들과의 연합을 염두에 둔 구상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대선 막판, 통합 정부를 지렛대로 정권재창출의 길을 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후보 선대위에서는 최근 안철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를 꺼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진영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가

박스권 지지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도 진영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대선이 막판까지 접전 흐름을 보인다면 안 후보나 김 후보와의 연대를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차기 내각 구상과 관련해 "과학 기술영역, 미래환경영역, 에너지 관련 영역 같은 부분들이 젊은 과학 인재들이 맡기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인공지능(AI)이나 디지털 영역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의 정치 개혁 드라이브는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인 설 연휴를 앞두고 정세기에 빠진 지지율의 상승을 다시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의 비전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정치 혁신의 공약은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 그늘에서 벗어나는 길이자 정권재창출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금촌역 광장에서 열린 '태터버스 파주, 민심속으로!'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선대위 "네거티브 논평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의 의혹을 공격하는 논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에 따른 것이다.

다만 상대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을 이어갈 예정인 만큼 '공세'와 '대

응' 사이에서 대응 수위를 고심 중이다.

권혁기 선대위 홍보부단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이 후보의) 선언에 따라 네거티브 논평은 내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부단장은 "예를 들어, 무속, 김씨 녹취록 문제 등과 관련한 논평은 내지 않는

다"고 덧붙였다. 선대위는 최근까지도 윤 후보 부부의 '무속인 친분' 의혹, 김씨의 '7시간 녹취록'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퍼왔지만, 이날 오전에는 윤 후보와 김씨의 무속 논란 등에 관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강득구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내역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강 의원 개별적으로 준비한 것이라는 게 선대위의 설명이다. /오광록 기자 kroh@

안철수 대선 후보 한신협 공동 인터뷰

"광주 군공항 다음 정부서 해결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다음 대통령이 이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진행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를 통해 "광주의 인공지와 광주형일자리를 결합한 무인자동차를 만들어야 하고, 광주와 대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안게임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근 세계적으로 3대 메가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와 4차 산업혁명,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다"며 "특히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인데, 이게 옛날 미국과 소련의 군사 패권 경쟁하고 다른 점이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경쟁력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인데 30년째 1등을 하고 있다. 비결은 1등과 2등 격차가 좁으면 언제든 추월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초격차 과학기술 57개만 더 확보하면 된다.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57개가 더 들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된다. 그게 '555 공약'이다.

-정치인 안철수를 평가한다면.
▲몇 가지 기준 성과가 있다면 지난 2016년 총선 때 의석 38석의 교섭단체를 만든 것이다.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것이다. 2017년 때 대선에 나와서 21% 받고 3위였다. 저는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게 3당 후보로 20% 넘게 받은 사람은 한국 정치 70년 역사상 고 김대중 대통령과 저, 두 사람밖에 없다. 2016년 총선 때는 정당 투표에서 거대 양당 중에 하나인 민주당을 꺾고 2등을 했다. 지난 10년간 저는 무슨 추문에 휩싸인 적이 없고 무슨 돈 문제도, 여성 문제도 없었다. 정도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다.

AI·광주형일자리 결합 무인자동차 만들어야

민간기업유치 법적 권한 지방정부에 이양 바람직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로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도입

전에 도움이 안 됐다. 결국 핵심은 기업이며 좋은 예가 아마존이다.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의 본사가 모자라서 제2 본사를 만들려고 하니 미국의 수많은 주가 신청을 했다. 결국은 버지니아 주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버지니아 주가 내건 조건은 국공유지 100년 무료, 법인세 10년 동안 안 받는 것이다. 또 아마존에서 필요한 인재가 있으면 지역 대학에서 맞춤형 학과를 신설을 해서 전적으로 인력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지자체가 할 수 없다. 권한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이런 법적 권한과 재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된다.

-광주·전남 통합 등 초광역경제권 논의가 활발한데 대안이 있는가.
▲사람과 물류가 제대로 교류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돼 있어야 광역 경제권이 작동한다. 그 쪽에 관심이 많다. 제가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555 공약'이 있다. 우리나라가

-과거 국민의당 호남 정치인들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호남은 저의 정치적인 고향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다. 영호남 통합의 손을 호남이 먼저 내미는 게 그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역사의 흐름의 물꼬를 트는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오해를 하신 것 같다. 제 잘못이다. 그래도 제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정치 제도 개편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양당제는 결국은 싸움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 영국이 그렇다.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게 정치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우선은 국회의원 선거 제도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 선거구에서 3명에서 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제도 중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굉장히 드문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다. 다당제가 되지 않아 한 개의 정당만 뽑는 호남과 영남은 그래서 더 피해자다. 경쟁이 돼야 지역 발전이 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음창호씨가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